

중학생의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실태와 여가 만족¹⁾

김 경 애* · 정 난 희* · 모 은 자**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 나주 문평중학교**

Education for Talent and Aptitude Development and Leisur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Kim, Gyung-Ae* · Jung, Lan-Hee* · Mo, Eun-Ja**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Naju Moon Pyoung middle school***

Abstract

The study has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ddle school students' after school activities and leisure satisfaction to provide the opportunity of making good use of leisure time and of developing students' latent talent and aptitude.

The research finding are as follows :

1. Based on socio-demographic variables, the female students had more rates of participation in talent and aptitude educational activity than male students. The number of the students from rural areas was much bigger than that of cities such as Gwangju or other big cities in Chonnam. But the students whose parents made a lot of money showed less interest in participating talent and aptitude educational activities.

2. Based on the research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students from counties or smaller areas showed more satisfaction than Gwangju in leisure satisfaction among the six subordinate categories. 7th graders were more satisfied in educational and environmental leisure activities than 8th or 9th graders. Moreover, as the family income is higher and as the father's educational level is higher, satisfaction rate from leisure activities came out to be higher.

3. In regard to satisfaction they get from their leisure activities, it was comparatively high when they had the activities voluntarily as their hobbies or for fun. Some students regarded it as their chances for the next step and they were really satisfied, too. And also the period of time was one of the factors that affected students' satisfaction. They were satisfied enough when they had the activities less than four month in a year. The students who had strong concentration and great enthusiasm showed high leisure satisfaction in all areas except for the environmental one.

주제어(Key Words) : 특기·적성 교육(talent and aptitude education), 여가 만족(leisure satisfaction), 중학생(middle school students)

1) 교신저자 : 김경애(kimka@chonnam.ac.kr)

I.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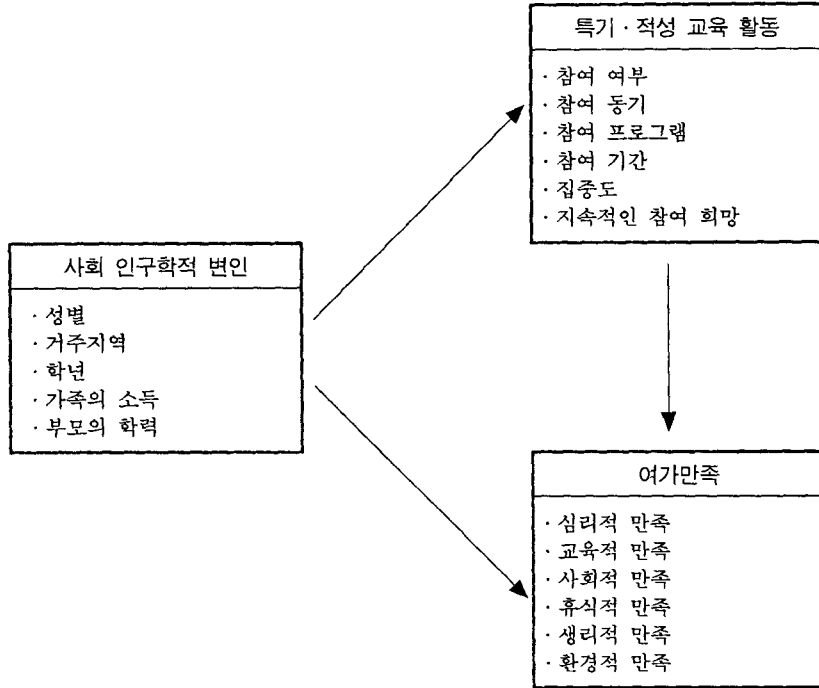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성숙과 함께 지적 발달 및 추상적인 사고에 의해서 자신과 주변 세계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전체를 이루어가고, 사회적인 직업의식이 발달하며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가면서 성인 생활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김윤자·박선희, 2000). 그러므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아 정체감을 획득해야 하나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정서적 긴장도 수반되어 불안과 갈등을 느끼며 타인과의 비교로 인하여 열등감이나 패배감 등의 부적응을 일으키기 쉽다.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느낌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기존 질서에 저항감을 갖게 하고, 가정이나 학교,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을 거부하며 흡연, 음주 등과 같은 이탈된 행동에 빠져들기 쉽게 한다.

특히 오늘날의 청소년은 청소년기 고유의 문제 이외에도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출현된 각종 매체나 기기들의 영향으로 더욱 큰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PC방이나 오락실 등에서 건전하지 못한 여가 활동으로 많은 시간을 소모함으로써 자신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청소년 비행 등의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양남희·홍은실, 2000). 그런데 이제까지의 학교 교육은 미래 사회에 주체적으로 적응하고, 다양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을 기르기에 그다지 적합한 교육이었다고는 확신할 수 없다.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 아래서 학생들의 개성이나 소질, 그리고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성적에 급급하여, 청소년들의 자아 정체감 형성이나 도덕성의 발달 혹은 정서적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는데 대한 배려와는 거리가 먼 비교육적 활동들이 시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감안할 때, 정규 교과 시간과 특별 활동 시간만으로는 학생들의 취미, 특기를 충분히 지도할 수 없으므로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 개인의 취미나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즉, 학교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소질과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인생의 꿈을 마음껏 키워가면서 생기있고 발랄한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을 제공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경남교육청, 1999). 이에 1995년 교육 개혁 방안의 하나로 특기·적성 교육 활동이 학교 현장에 도입되게 되었다.

청소년들에게 학교의 특기·적성 교육 활동 및 관련 내용들은 평가 및 성적이라는 부담스러운 요소가 배제된 교과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또 다른 학교생활의 한 부분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잠재 능력 및 적성을 계발하여 여가 선용 및 특기 신장의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여가를 보다 더 보람 있게 보내면서 건전한 놀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육 활동이라 하겠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생리적·정신적·사회 심리적으로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특성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로 실제적으로 직면한 입시에 대한 부담과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인격과 정서의 균형 잡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특별한 대안 없이 청소년들의 '노는 모습'과 문화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회의 통념으로 인해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한 "반문화(Counter culture)"형성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미 현실화되어 음성적 행태(김문경, 1993)가 대항문화의 양식을 갖추면서 당당하게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장래의 진로 문제 등으로 인해 누구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심한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경우 작게는 불안이나 짜증에서부터 시작하여 크게는 무력감과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고 극단적으로는 자살이나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대처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부각되는 것이 여가활동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방법을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가생활의 참된 의미와 내용을 알게 하고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여가활동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주현식, 2001).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 및 학업 수행이 높아지고 특히 여가활동에의 참여빈도가 많을수록 여가의 진정한 가치를 체득하여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 사회화 과정을 잘 보여준다(원형중·박수정·하지연, 2001).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학교 교육의 신뢰성을



〈그림 1〉 연구 모형

회복하고, 내실 있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육성방안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여가 선용 및 특기 신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심신의 발달을 돕도록 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통하여 앞으로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1999년 현재 전체 중학교의 98.2%가 특기·적성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교육부, 1999)에도 불구하고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실태 및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와 여가 활용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일선 학교에서 여가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여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정희장(1999)은 남녀 학생간의 여가만족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부모의 학력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거주지역간에 특기·적성 교육의 참여 정도가 차이가 있게(교육부, 1999)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주·전남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 거주지역별, 학년, 가족의 소득 및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 특기·적성 교육 참여 실태와 여가만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동기, 참여 프로그램, 집중도, 참여 빈도 등에 따라 여가의 만족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청소년의 여가 활용으로서 특기·적성 교육 활동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문제

- 1) 사회 인구학적 변인(성별, 거주지역, 학년, 가족의 소득, 부모의 학력)에 따라 특기 적성 교육 활동 참여 실태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 2)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여가 만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 3) 특기 적성 교육 활동 참여(동기, 프로그램, 기간, 집중도, 지속적인 참여희망)에 따라 여가 만족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에 기초하여 구성된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여가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II. 관련문헌 고찰

1. 청소년기 여가의 의의

청소년들에게 있어 여가는 사회적 접촉, 발달, 성취 등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사회적인 도구로서 사용되고 이러한 환경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역할과 행동을 경험할 수 있는 역할도 담당하게 되며 성장하는 청소년의 인격형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심리적으로 성숙한 개인의 완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여가문제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문제로서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선도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박정현, 1999). 그리고 현대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청소년의 성격 발달이나 성격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여 왔다. 입시 위주의 교육 또는 학력 제일주의 풍토는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청소년의 여가활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발달을 촉진시키고 빠른 현대사회의 변동에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도와주며 타인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계고시켜 나가는데 최적의 수단으로 평가된다.(박성준·이홍구, 1999).

여가(leisure)란 그리스어로서 학교(school)의 어원이기도 한 schole(한가, 여유)와 라틴어의 licence에서 비롯되었다. 즉 여가가 단지 스트레스 해소나 건강 유지, 시간 때우기 식의 활동이 아닌 보다 나은 개인의 삶을 위한 자아 성찰의 시간이며 학교는 이러한 시간을 관리해 주는 관리자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지식과 기술의 주입식 학습과 지나친 경쟁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적성에 맞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화, 각종 여가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연계적 활용, 다양한 학급행사 실시 등을 통한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강화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원형중·박수정·하지연, 2001). Evans와 Poole(1991)는 여가활동은 자아개념과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개인이 여가활동을 통해 자아발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중요한 삶의 기술이나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Kelly(1983)는 여가활동이 자아발달과 자아표현을 위한 중요한 생활

이라고 보았으며, 여가가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적응력을 길러주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은 신체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학교·사회생활에서 받는 욕구 불만, 좌절, 갈등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줌으로써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게 해준다고 하였다. 임혜정(1994)은 청소년의 성장을 위하여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여가활동은 참여율이 높은 정도가 자아실현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고 하였으며, 김홍설 등(1996)도 청소년기의 여가생활은 자아실현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전인교육과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들에게 여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며, 궁극적으로는 전인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여가교육을 실시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여가활동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그나마 주어진 여가시간마저도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진정한 여가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윤용진, 2000),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청소년 여가활동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활동으로서 사회성향을 희망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는 활동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현대사회의 구조적, 문화적 활동으로 파생된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치유하여 전인적 인간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아를 형성시켜 주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하겠다(이강우, 2001).

2.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실태

학교 교육은 자신의 소질과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인생의 꿈을 마음껏 키워가면서 학생들 스스로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문제 상황에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최종승, 2001). 이에 정부에서는 교육 개혁중의 하나인 특기·적성교육을 추진하였다. 이는 지역사회,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 및 창의력 신장 등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교육비를 경감시킴으로서 교육에 대한 국민

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방과 후 교육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어 오면서 “특기·적성교육”이란 형태로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다(장석민, 1999). 방과 후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과 지도나 보충수업을 금지하면서 어떤 바람직한 방향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특기·적성 교육의 형태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교육부(1999) 자료에 의하면 특기·적성교육의 목적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가장 알맞은 상태로 발전시키는 데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하여 바람직한 신체활동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의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은 태어나면서 가지는 것이 아니고 경험의 과정에서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성인으로서 역할을 준비하는 예비단계로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 및 발달과정을 겪는 과도기적 시기이다. 이 시기의 학습이나 경험은 인격 및 태도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지도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시기이다.

“특기·적성 교육”은 “특기교육”(Education for Talent Development)과 “적성교육”(Education for Aptitude Development)을 통합한 복합명사로 받아들인다. 특기·적성 교육 활동은 학원 다니기, 숙제하기, 문제집 풀기 등으로 인하여 놀이 시간이 없어지고 여가가 있을 경우에도 무질서하고 불건전한 생활로 시간을 낭비함은 물론이고 점점 나약한 체력과 건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지는 요즘 청소년들에게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면서 건전한 놀이 문화(경남교육청, 1999)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육 활동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기·적성 교육 활동은 지역별로 운영상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도시 지역은 학부모들이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으나, 학교의 여건상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일부 학부모는 학교의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대하여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중소 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이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대하여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특히 소규모 학교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특기·적성 교육 활동을

지도할 강사를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은 학부모들이 유료로 실시되는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지역별로는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정도가 도시지역이 63.4%, 농어촌 지역은 76.9%로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참여도는 남학생이 67.3%, 여학생이 69.3%가 참여하고 있었다(교육부, 1999). 부모의 학력별로는 부모의 학력이 중졸 이하거나 대졸 이상일 경우에 더 많이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참여한 반면에 부모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에 더 적게 참여하였다. 또한 강성구와 최재원(2002)은 학교의 특기·적성 체육 교육활동 참여시간이 많을수록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심리적 만족도, 신체적 만족도, 환경적 만족도, 교육적 만족도, 사회적 만족도 모두에서 높게 인지한다고 하였다. 장석민(1999)은 특기·적성 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모든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을 포함한 자아 특성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발해 주어야 하며, 교과와 심화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에 관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3. 여가 만족

만족은 기본적으로 보상의 문제로서 개인이 어떠한 활동을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라고 Homans(1961)는 정의하였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활동의 보상에 만족할 때 그 활동이 만족스럽다고 말한다. Ragheb와 Beard(1980)는 이를 여가 행위에 적용시켜 참가자가 만족스러운 즐거움, 성취, 건강 증진과 같은 보상을 얻거나 이끌어 내었을 때 그 여가 활동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Neulinger와 Rap(1972) 및 Crandall과 Seals(1977) 등은 여가만족의 개념을 특정 여가 활동을 통하여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 및 욕구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또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라고 표현하였다. 즉, 여가 만족은 인간이 충족시켜야만 하는 사회 친화, 상호작용, 대인 관계의 욕구 충족에 의한 산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Dumazedier(1967)는 활동을 통한 만족 상태가 종료되거나 파괴되면 개인은 상응하는 활동을 지속하지 않는다고 주

장하면서 여가 만족을 특정한 욕구에 부응하는 기대감으로 정의하였고, Bulten과 Wood(1970)는 여가 만족은 여가 활동을 통하여 얻게 되는 긍정적 결과라고 하였다. 즉, 여가 만족이 미래의 여가 선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가 만족은 특정 개인이 여가 활동의 선택과 참가로 형성되거나 획득하는 긍정적인 인식 또는 감정과 만족의 정도를 뜻한다. 즉, 여가 또는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느끼는 욕구의 충족 및 만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유희영, 1999).

여가 만족도는 정신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며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이두희·박미석, 1998)로서, 현재 여가활동의 선택과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개개인의 주관적인 긍정적 감정이며 미래 여가활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 만족도를 관련지어 연구한 광혜숙(1998), 한담석(1998)은 여가활동 유형이 여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여가활동 유형 중 스포츠 활동, 사교 활동 같은 많은 신체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능동적 여가활동이 다른 여가활동에 비해 여가 만족도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하여 심리적 안녕감 같은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박상욱, 1998)고 하였다. 또한 여가 만족도는 개인의 능력 수준과 여가활동 수준의 조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얻어진다고 한다. Csikszentmihalyi(1975)는 청소년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하위적 여가활동에 참여하거나 질적인 수준이 높은 여가활동이라 할지라도 청소년의 여가활동 방법에 대한 지식적 능력의 결여 및 신체적 미숙함은 여가만족에 도달치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여가활동에 있어 참가자의 능력이 활동수준과 최적 상호작용을 나타낼 때 비로소 만족감이 극대화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여가활동 수준은 여가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으로 변화시켜 도전하는 여가활동 안에서 여가만족은 더욱 증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청소년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능동적·활동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할 때 가장 극대화된 여가 만족도를 경험한다(박미석 외, 2001)고 하였다.

여가행동의 유형은 여가시간의 활용목적, 참여유형, 동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접근 방식은 여가시간의 활용목적, 시설 사용 정도,

참가자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Lutzin 등(1973)은 여가활동을 표현형태에 따라 신체적 활동, 사교적 활동, 문화적 활동, 자연적 활동, 정신적 활동으로 분류하였으며, Gold(1980)는 여가행동을 활동경험에 기초하여 육체적 여가, 사회적 여가, 인지적 여가, 환경관련적 여가 등 네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정희장(1999)에 의하면 중학생의 성별 여가만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생리적 만족은 크고, 심리적 만족, 교육적 만족, 사회적 만족, 휴식적 만족, 환경적 만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예비 조사는 2001년 8월 27일에서 30일에 전라남도의 N중학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중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항인지를 확인하고 의문점이 있는 문항은 조사 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1년 9월 7일~15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중학교 2개교와 전라남도의 중학교 4개교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 총 530명을 선정하였다.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참여도와 참여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표집 대상 학교를 연구자와 보조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한 다음 응답요령 및 주의사항을 설명한 후 자기 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내용을 응답하도록 지시하고,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한 설문지는 응답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실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492부 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 중에서 남학생(48.6%)과 여학생(51.4%)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거주 지역은 광주광역시(46.3%)가 가장 많았고, 전남의 시 지역(15.4%), 읍 지역(15.0%), 면 지역(23.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31.9%), 2학년(31.9%), 3학년(36.2%)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가족의 소득 정도는 150만원 미만(27.9%), 150만원~200만원 미만(30.8%)이 가장 많았고, 200만원~250만원 미만(18.5%), 250만원~300만원 미만(11.0%), 300만원 이상(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 아버지(39.4%)와 어머니(56.2%)로 가장 많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92)

변수	변수 수준	N	%	
성별	남자	239	48.6	
	여자	253	51.4	
학년	1학년	157	31.9	
	2학년	157	31.9	
	3학년	178	36.2	
거주지역	광역시	228	46.3	
	시	76	15.4	
	읍	74	15.0	
	면	114	23.2	
가족 소득	150만원 미만	127	27.9	
	150~200만원 미만	140	30.8	
	200~250만원 미만	84	18.5	
	250~300만원 미만	50	11.0	
	300만원 이상	54	11.9	
부모의 학력	부	초졸	40	8.3
		중졸	64	13.3
		고졸	190	39.4
		대졸 이상	188	39.0
	모	초졸	41	8.6
		중졸	77	16.2
		고졸	267	56.2
		대졸 이상	90	18.9

았으며, 아버지는 대졸 이상은 39.0로 나타났으며, 어머니는 대졸 이상이 18.9%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61.38%)이 그렇지 않은 학생(38.62%)보다 많았다.

2. 조사 도구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중학생의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와 여가 만족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진성룡(1999), 유희영(1999), 한담석(1998), 이현정(1997) 등의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내용은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관련된 문항 및 여가 만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문항은 성별, 거주지역, 학년, 부모의 학력, 가족의 소득 정도 등이었으며, 특기·적성 교육 활동과 관련된 문항은 참여 여부, 참여 횟수, 집중도, 지속적인 참여 희망 여부 등이었다. 여가 만족에 관한 문항은 Beard와 Regheb(1980)에 의해서

개발되고, 이종길(1992)이 번안하여 사용한 여가 만족 척도(Leisure Satisfaction Scale: LSS)를 사용하였다. 여가 만족 척도는 최초 51개 문항에서 24개 문항으로 축소된 것으로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휴식적, 생리적, 환경적 만족의 6개 하위요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하위척도의 문항수는 각각 4개 문항으로 총 24개 문항이다. 여가 만족 척도의 6개 하위 요인별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잘 모르겠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가 만족 척도의 6개 하위 요인별 점수의 산출은 각 요인별 점수의 문항 수(4)로 나눈 값으로 하였다(이강현·조춘환, 2002). 설문지의 문항 내용 구성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를 증명하기 위해 Cronbach' a 계수를 산출한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심리적 만족의 신뢰도는 Cronbach' a 값이 0.86, 교육적 만족의 신뢰도는 Cronbach' a 값이 0.74, 사회적 만족의 신뢰도는 Cronbach' a 값이 0.77, 휴식적 만족의 신뢰도는 Cronbach' a 값이

〈표 2〉 설문지의 문항 내용 구성

구성 지표	구성 내용
사회인구학적변인	성별 거주지역 학년 가족의 소득 부모의 학력
교과목	담임교사의 담당과목 좋아하는 교과목 싫어하는 교과목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여부 참여 동기 참여 프로그램 참여횟수 참여시간 참여기간 집중도 지속적인 참여 희망 정도
여가만족	심리적 만족 : 흥미, 자부심, 성취감, 자아감 교육적 만족 : 지식 습득, 진로 선택에 도움, 도전의식, 능력발휘 사회적 만족 : 타인과의 교류, 관계 유지, 친목 도모 휴식적 만족 : 휴식, 스트레스 해소, 정서적 안정감 생리적 만족 : 체력 시험, 체력 증진, 신체적 활력, 건강 유지 환경적 만족 :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의 시설, 설비

〈표 3〉 여가만족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값 산출)

척 도	하 위 영 역	신뢰도 계수
여가만족	심리적 만족	0.86
	교육적 만족	0.74
	사회적 만족	0.77
	휴식적 만족	0.81
	생리적 만족	0.88
	환경적 만족	0.90
	전 체	0.90

0.81, 생리적 만족의 신뢰도는 Cronbach' a 값이 0.88, 환경적 만족의 신뢰도는 Cronbach' a 값이 0.90이었으며 전체는 0.90으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 중 응답 내용이 불성실한 것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분석 가능한 자료만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설문지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을 사용하여 조사 대상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은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여가 만족 정도는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정도는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과 χ^2 검증을 실시하였고,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에 따른 여가 만족 정도는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과 t-test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실태

1)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여부

조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여부는 <표 4>와 같이 성별(P<.001), 거주지역(P<.001), 가족의 소득(P<.001), 부모의 학력(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은 절반 정도(51.05%)가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참여한 반면, 여학생은 대부분(71.15%)이 참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대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읍, 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모두가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은 절반 정도(48.68%) 참여하였고, 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거의 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3.95%)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은 60.51%, 2학년은 69.43%, 3학년은 55.06%로 저학년 학생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대다수(77.17%)가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참여한 반면 월 평균 소득이 250만원 이상인 가정의 학생들은 절반 이하(46.00%)로 참여해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게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경우에는 참여 비율이 높은(87.80%) 반면에 부모의 학력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여부

N(%)

변인		참여 여부	전체	참여	비참여	χ^2
성별	남자		239(45.58)	122(51.05)	117(48.95)	20.95*** (df = 1)
	여자		253(51.42)	180(71.5)	73(28.85)	
거주 지역	광역시		228(46.34)	111(48.68)	117(51.32)	239.55*** (df = 3)
	시		76(15.45)	3(3.95)	73(96.05)	
	읍 면		74(15.04) 114(23.17)	74(100) 114(100)	0(0) 0(0)	
학년	1학년		157(31.91)	95(60.51)	62(39.49)	7.34* (df = 2)
	2학년		157(31.91)	109(69.43)	48(30.57)	
	3학년		178(36.18)	98(55.06)	80(44.94)	
가족의 소득 (만원)	150 미만		127(27.91)	98(77.17)	29(22.83)	25.04*** (df = 4)
	150~200미만		140(30.77)	71(50.71)	69(49.29)	
	200~250미만		84(18.46)	52(61.90)	32(38.10)	
	250~300미만 300 이상		50(10.99) 54(11.87)	23(46.00) 34(62.96)	27(54.00) 20(37.04)	
부의 학력	초졸		40(8.30)	37(92.50)	3(7.50)	30.82*** (df = 3)
	중졸		64(13.28)	50(78.13)	14(21.88)	
	고졸		190(39.42)	108(56.84)	82(43.16)	
	대졸 이상		188(39.00)	100(53.19)	88(46.81)	
모의 학력	초졸		41(8.63)	36(87.80)	5(12.20)	28.04*** (df = 3)
	중졸		77(16.21)	60(77.92)	17(22.08)	
	고졸		267(56.21)	150(56.18)	117(43.82)	
	대졸 이상		90(18.95)	46(51.11)	44(48.89)	

*P<.05

***P<.001

이 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51.11%) 나타났다. 본 조사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율이 높았으며, 읍, 면 지역의 학생은 조사 대상자 모두가 참여한 반면에 광역시 소재 중학생은 절반 정도 참여하였으며, 시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소득이 높은 집단이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부모의 학력이 높은 집단도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았다.

2)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빈도
 조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빈도는 <표 5>와 같이 성별(P<.05),

거주지역(P<.001), 학년(P<.01), 가족의 소득(P<.001) 및 부모의 학력(P<.001)에 따라 참여 빈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빈도는 남학생이 주당 참여 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빈도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주당 참여 횟수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라남도 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횟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학년별 특기·적성 교육 참여 빈도는 학년이 높을수록 참여기간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의 소득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빈도는 소득이 높은 집단의 참여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빈도는 부모의 학력이 높은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빈도 (N = 302)

변인		참여 빈도		주당참여횟수		
		M	SD	D		
성별	남자	2.86	1.10			
	여자	2.60	0.95			
	t	2.21*				
거주 지역	광역시	3.94	0.61	A		
	읍	2.00	0.00	B		
	면	2.00	0.13	B		
	F	631.64***				
학년	1학년	2.71	1.01	AB		
	2학년	2.89	1.07	A		
	3학년	2.49	0.94	B		
	F	4.05*				
가족의 소득 (만원)	150 미만	2.39	0.82	C		
	150~200 미만	2.69	1.00	BC		
	200~250 미만	2.85	1.16	B		
	250~300 미만	2.87	1.01	B		
	300 이상	3.29	1.06	A		
	F	5.98***				
부의 학력	초졸	2.00	0.00	C		
	중졸	2.12	0.48	C		
	고졸	2.63	0.97	B		
	대졸이상	3.34	1.09	A		
	F	32.11***				
모의 학력	초졸	2.06	0.33	C		
	중졸	2.67	0.69	C		
	고졸	2.86	1.07	B		
	대졸이상	3.33	1.12	A		
	F	17.89***				

*P<.05 **P<.01 ***P<.001

집단의 참여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은 부모의 자녀가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참여 여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3)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 활동 집중도

조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 활동 집중도는 <표 6>과 같이 거주지역(P<.001), 학년(P<.001) 및 부의 학력(P<.05)에 따라 활동 집중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거주 지역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시 집중도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은 특기·적성 교육 활동 시간에 사분의 일 정도(25.23%)가 집

중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읍(9.46%), 면(4.39%) 지역에서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년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시 집중도는 1학년은 대다수(65.26%)로 가장 높았고, 2학년(41.28%), 3학년(37.76%)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시 집중도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과 가족의 소득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 활동 집중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의 지속적인 참여희망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 활동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 활동 집중도

N(%)

변 인		집 중 도	집중한다	그저 그렇다	집중하지 않는다.	χ^2
성별	남자		57(47.11)	47(38.84)	17(14.05)	0.12 (df=2)
	여자		87(48.07)	71(39.23)	23(12.71)	
거주 지역	광역시		47(42.34)	36(32.43)	28(25.23)	24.40*** (df=4)
	읍		35(45.45)	35(45.45)	7(9.09)	
	면		62(54.39)	47(41.23)	5(4.39)	
학년	1학년		62(65.26)	28(29.47)	5(5.26)	19.39*** (df=4)
	2학년		45(41.28)	45(41.28)	19(17.43)	
	3학년		37(37.76)	45(45.92)	16(16.33)	
가족의 소득 (만원)	150 미만		44(44.44)	48(48.48)	7(7.07)	11.40 (df=8)
	150~200 미만		36(51.43)	25(35.71)	9(12.86)	
	200~250 미만		24(46.15)	20(38.46)	8(15.38)	
	250~300 미만		10(43.48)	10(43.48)	3(13.04)	
	300 이상		20(58.82)	7(20.59)	7(20.59)	
부의 학력	초졸		17(45.95)	20(54.05)	0(0.00)	13.73* (df=6)
	중졸		25(50.00)	21(42.00)	4(8.00)	
	고졸		50(46.30)	44(40.74)	14(12.96)	
	대졸 이상		49(49.00)	31(31.00)	20(20.00)	
모의 학력	초졸		15(41.67)	21(58.33)	0(0.00)	12.10 (df=6)
	중졸		30(50.00)	25(41.67)	5(8.33)	
	고졸		71(47.33)	55(36.67)	24(16.00)	
	대졸 이상		23(50.00)	15(32.61)	8(17.39)	
전 체			144(47.68)	118(39.07)	40(13.25)	

*P<.05 ***P<.001

〈표 8〉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동기

N(%)

변 인		참 여 동 기	적성에 맞아서	교사나 부모의 권유	친구의 권유	진학을 위해서	적당한 부서가 없어서	X ²
성별	남		47(38.85)	23(19.01)	12(9.92)	8(6.61)	31(25.62)	9.52 (df=4)
	여		75(41.67)	30(16.67)	12(6.67)	17(9.44)	46(25.56)	
거주 지역	광역시		43(38.74)	25(22.53)	10(9.01)	9(8.11)	24(21.63)	21.93 (df=8)
	읍		32(41.56)	12(15.58)	4(5.19)	2(2.60)	27(35.06)	
	면		47(41.59)	16(14.15)	10(8.85)	14(12.39)	26(23.00)	
학년	1학년		47(49.47)	19(20.00)	9(9.47)	10(10.53)	10(10.53)	35.75*** (df=8)
	2학년		41(37.61)	25(22.94)	6(5.50)	9(8.26)	28(25.69)	
	3학년		35(35.71)	9(9.18)	9(9.18)	6(6.12)	39(39.80)	
가족의 소득 (만원)	150 미만		36(36.36)	17(17.17)	7(7.07)	12(12.12)	27(27.27)	32.26 (df=16)
	150~200 미만		31(44.29)	15(21.42)	6(8.57)	3(4.29)	15(21.42)	
	200~250 미만		26(50.00)	7(13.47)	6(11.54)	3(5.77)	10(19.23)	
	250~300 미만		5(22.73)	4(18.19)	2(9.09)	4(18.18)	7(31.82)	
	300 이상		15(44.11)	5(14.70)	1(2.94)	2(5.88)	11(32.36)	
부의 학력	초졸		13(36.11)	3(8.33)	3(8.33)	3(8.33)	14(38.89)	25.22 (df=12)
	중졸		24(48.00)	7(14.00)	4(8.00)	5(10.00)	10(20.00)	
	고졸		42(38.09)	22(20.37)	9(8.33)	9(8.33)	26(24.08)	
	대졸 이상		41(41.00)	20(20.00)	7(7.00)	8(8.00)	24(24.00)	
모의 학력	초졸		13(36.12)	2(5.56)	2(5.56)	4(11.11)	15(41.67)	28.48 (df=12)
	중졸		29(49.15)	8(13.56)	8(13.56)	3(5.08)	11(18.64)	
	고졸		56(37.33)	33(22.00)	9(6.00)	14(9.33)	38(25.34)	
	대졸 이상		19(41.31)	8(17.39)	5(10.87)	4(8.70)	10(21.74)	
전 체			123(40.73)	53(17.55)	24(7.95)	25(8.28)	77(25.50)	

***P<.001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들의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동기로 '자신의 관심분야이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정희장(1999)의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성별, 거주지역, 가족의 소득, 부모의 학력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 활동의 참여 동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여가 만족

조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여가만족은 〈표 9〉와 같다. 성별 여가만족은 휴식적 만족(p<.01)과 생리적 만족(p<.001), 환경적 만족(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성별 여가만족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생리적 만족이 크다는 정희장(1999)의 결과와 일부 일치함을 보였다. 거주 지역별 여가만족은 휴식적 만족(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휴식적 만족이 높게 나타났고, 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휴식적 만족이 제일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 여가만족은 교육적 만족(P<.001), 환경적 만족(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1학년이 가장 여가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소득별 여가만족에서는 사회적 만족(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가족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 여가만족이 가장 크고 가족의 소득이

〈표 9〉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여가만족

(N=492)

변인		여가만족		심리적 만족		교육적 만족		사회적 만족		휴식적 만족		생리적 만족		환경적 만족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	3.27	0.93	3.21	0.86	3.22	0.89	3.59	0.91	2.93	1.14	3.14	0.91		
	여	3.27	0.81	3.24	0.77	3.17	0.77	3.36	0.99	2.59	0.97	2.92	0.83		
t		0.07		0.38		0.66		2.76**		3.61***		2.86**			
거주 지역	광역시	3.20	0.92	3.26	0.86	3.20	0.85	3.33	1.02	2.72	1.08	3.12	0.92		
	시	3.34	0.84	3.25	0.89	3.30	0.86	3.66	0.91	2.77	1.15	3.26	0.87		
	읍	3.33	0.87	3.23	0.76	3.21	0.67	3.46	0.95	2.71	0.91	3.15	0.86		
	면	3.32	0.78	3.12	0.70	3.09	0.85	3.63	0.81	2.85	1.07	3.16	0.77		
F		0.81		0.81		1.01		3.73**		0.46		0.96			
학년	1	3.36	0.78	3.46a	0.77	3.24	0.76	3.48	0.91	2.83	1.03	3.14 ^a	0.82		
	2	3.26	0.93	3.08b	0.77	3.20	0.82	3.43	1.00	2.69	1.07	2.84 ^b	0.88		
	3	3.19	0.88	3.14b	0.85	3.14	0.89	3.50	0.96	2.75	1.10	3.09 ^a	0.89		
	F	1.49		10.08***		0.54		0.25		0.71		5.43**			
가족의 소득 (만원)	150 미만	3.10	0.84	3.10	0.75	3.01	0.81 ^b	3.42	0.96	2.77	1.06	2.85	0.87		
	150~200 미만	3.36	0.93	3.29	0.78	3.33	0.79 ^a	3.44	1.00	2.72	1.12	3.11	0.91		
	200~250 미만	3.35	0.77	3.27	0.94	3.25	0.93 ^{ab}	3.53	0.85	2.86	1.04	3.16	0.77		
	250~300 미만	3.32	0.90	3.29	0.90	3.15	0.83 ^{ab}	3.71	0.94	2.98	1.00	3.07	0.91		
	300 이상	3.45	0.91	3.35	0.83	3.38	0.79 ^a	3.48	1.01	2.81	1.17	3.10	0.94		
F		2.30		1.04		3.31*		0.99		0.60		2.18			
부의 학력	초졸	3.31	0.69	3.16	0.69	2.94	0.79 ^b	3.67	0.73	2.83	0.95	2.64 ^b	0.80		
	중졸	3.32	0.75	3.18	0.66	3.20	0.73 ^{ab}	3.56	0.85	2.75	1.11	3.01 ^{ab}	0.72		
	고졸	3.19	0.85	3.15	0.83	3.13	0.85 ^{ab}	3.46	0.97	2.78	1.05	3.08 ^{ab}	0.86		
	대졸	3.43	0.94	3.34	0.85	3.32	0.82 ^a	3.43	1.00	2.73	1.11	3.07 ^a	0.92		
F		1.06		2.04		3.18*		0.90		0.13		3.01*			
모의 학력	초졸	3.14	0.57	3.15	0.63	3.02	0.80	3.41	0.72	2.55	0.96	2.84	0.82		
	중졸	3.22	0.92	3.12	0.74	3.03	0.80	3.54	0.94	2.77	1.04	2.99	0.84		
	고졸	3.30	0.85	3.22	0.84	3.25	0.80	3.47	0.97	2.81	1.11	3.03	0.82		
	대졸	3.34	0.96	3.40	0.83	3.29	0.92	3.45	0.99	2.73	1.03	3.13	1.03		
F		0.64		1.95		2.39		0.21		0.71		1.09			

*P<.05 **P<.01 ***P<.001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 여가만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 소득과 여가만족은 소득이 높은 집단의 여가만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여가만족은 사회적 만족(P<.05), 환경적 만족(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여가만족이 크고 초졸 이하인 여가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여가만족은 가정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에 따른 여가 만족

1)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동기에 따른 여가 만족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동기에 따른 여가 만족의 결과는 〈표 10〉과 같다.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동기에 따라서 심리적 만족(P<.001), 교육적 만족(P<.01), 휴식적 만족(P<.05), 환경적 만족(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동기 중에서 적성에 맞기 때문에 선택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심리적, 교육적, 휴식적, 환경적 여가만족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고 진학을 위해서라고 답변한 경우에는 교육적, 휴식적 여가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2)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기간에 따른 여가 만족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기간에 따른 여가 만족의 결과는 〈표 11〉과 같다.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

〈표 10〉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동기에 따른 여가만족

(N=302)

여가 만족 참여 동기	심리적 만족		교육적 만족		사회적 만족		휴식적 만족		생리적 만족		환경적 만족		전 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적성에 맞아서	3.58 ^a	0.28	3.37 ^a	0.82	3.33	0.83	3.64 ^a	0.87	2.85	1.15	3.10 ^a	0.87	3.31 ^a	0.66
교사나 부모의 권유	3.23 ^{ab}	0.95	3.18 ^{ab}	0.79	3.24	0.85	3.44 ^{ab}	1.21	2.52	1.12	2.78 ^b	0.97	3.06 ^{ab}	0.73
친구의 권유	3.09 ^b	0.77	3.24 ^{ab}	0.68	2.91	0.83	3.09 ^b	0.80	2.92	0.93	2.97 ^{ab}	0.73	3.04 ^{ab}	0.58
진학을 위해서	3.21 ^{ab}	0.57	3.38 ^a	0.79	3.02	0.95	3.60 ^a	0.92	2.73	1.08	3.20 ^a	0.86	3.19 ^{ab}	0.61
원하는 부서가 없어서	3.08 ^b	0.88	2.95 ^b	0.84	3.11	0.89	3.31 ^{ab}	0.96	2.78	0.98	2.73 ^b	0.94	2.99 ^b	0.63
F	5.02***		3.49**		1.92		2.49*		0.97		3.01*		3.38**	

* P<.05 **P<.01 ***P<.001

여 기간에 따라서 여가 만족은 심리적 만족(P<.05), 교육적(P<.001), 환경적 만족(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심리적, 교육적, 환경적 만족에서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기간이 4개월 미만인 학생들의 여가만족에 대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3) 특기·적성 교육 활동 집중도에 따른 여가 만족

특기·적성 교육 활동 집중도에 따른 여가 만족은 〈표 12〉와 같다. 특기·적성 교육 활동 집중도에 따

라서 여가 만족은 심리적 만족(P<.001), 교육적 만족(P<.001), 사회적 만족(P<.05), 휴식적 만족(P<.001), 생리적 만족(P<.01), 환경적 만족(P<.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집중하는 학생이 심리적 만족, 교육적 만족, 사회적 만족, 휴식적 만족, 생리적 만족, 환경적 만족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횟수, 집중도가 높은 경우 여가 만족이 더 커진다는 정희장(1999)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표 11〉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기간에 따른 여가만족

(N = 302)

여가 만족 참여 기간	심리적 만족		교육적 만족		사회적 만족		휴식적 만족		생리적 만족		환경적 만족		전 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4개월 미만	3.52 ^a	0.77	3.52 ^a	0.77	3.31	0.76	3.54	0.97	2.86	1.05	3.11 ^a	0.89	3.31 ^a	0.61
5~9 개월	3.22 ^b	0.93	3.07 ^b	0.83	3.17	0.88	3.40	1.02	2.78	1.13	2.75 ^b	0.88	3.05 ^b	0.68
10개월 이상	3.23 ^b	0.92	3.10 ^b	0.79	3.10	0.95	3.50	0.91	2.69	1.06	3.00 ^{ab}	0.91	3.12 ^b	0.68
F	3.87*		9.23***		1.49		0.56		0.64		4.32*		4.16*	

*P<.05 ***P<.001

〈표 12〉 특기·적성 교육 활동 집중도에 따른 여가만족

(N=302)

집중도	여가 만족		심리적 만족		교육적 만족		사회적 만족		휴식적 만족		생리적 만족		환경적 만족		전 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집중한다	3.61 ^a	0.76	3.41 ^a	0.72	3.34 ^a	0.81	3.69 ^a	0.92	2.90 ^a	1.07	3.12 ^a	0.88	3.34 ^a	0.58		
보통이다	3.15 ^b	0.78	3.16 ^a	0.74	3.11 ^{ab}	0.80	3.30 ^b	0.88	2.77 ^a	1.03	2.81 ^b	0.82	3.05 ^b	0.59		
집중안한다	2.79 ^c	1.21	2.72 ^b	1.12	2.95 ^b	1.13	3.22 ^b	1.21	2.31 ^b	1.16	2.73 ^b	1.10	2.79 ^c	0.91		
F	18.95***		12.56***		4.26*		7.10***		4.77**		5.30**		14.64***			

*P<.05 ** P<.01 *** P<.001

4) 특기·적성 교육 활동의 지속적인 참여 희망과 여가 만족

특기·적성 교육 활동의 지속적인 참여 희망과 관련된 여가 만족은 〈표 13〉과 같다.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가의 여부는 심리적 만족(P<.001), 교육적 만족(P<.001), 사회적 만족(P<.01), 휴식적 만족(P<.001), 생리적 만족(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그저 그렇다는 반응이나 지속적인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환경적 만족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평균값이 높아서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의 여가 만족이 더 높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중학생의 특기·적성 교육 활동과 여가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 인구학적변인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실태와 여가 만족 및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동기, 프로그램, 기간, 집중도, 지속적인 참여 희망)에 따른 여가 만족 관계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여가만족이 높은 것으로 보아 특기·적성 교육 활동과 여가 만족은 그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고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

〈표 13〉 특기·적성 교육 활동의 지속적인 참여 희망과 여가만족

(N=302)

참여 희망	여가 만족		심리적 만족		교육적 만족		사회적 만족		휴식적 만족		생리적 만족		환경적 만족		전 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계속 희망한다	3.63 ^a	0.72	3.44 ^a	0.73	3.33 ^a	0.78	3.78 ^a	0.80	2.99 ^a	1.04	3.05	0.83	3.37 ^a	0.57		
그저 그렇다	3.19 ^b	0.79	3.11 ^b	0.77	3.23 ^a	0.81	3.29 ^b	0.96	2.56 ^b	0.99	2.90	0.89	3.05 ^b	0.61		
희망하지 않는다	3.02 ^b	1.04	3.02 ^b	0.92	2.98 ^b	0.98	3.21 ^b	1.07	2.67 ^b	1.17	2.84	0.99	2.96 ^b	0.76		
F	15.48***		8.16***		4.51**		11.90***		4.66**		1.54		12.61***			

** P.01 ***P<.001

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설정되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둘째, 특기·적성 교육 활동은 문화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벽지, 농어촌 학생들에게 더 많이 실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어촌 학교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우수한 강사의 확보가 어렵고, 시설 설비가 부족한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강사의 순회지도나, 시설 설비의 공용 등의 방안이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게 모색되어야 하겠다.

셋째,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가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때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특기·적성 교육 활동이 거듭될수록 학생의 흥미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학년별 차별화 등을 모색해야 하겠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학교의 특기·적성 교육 활동은 방과 후에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시켜주는 교육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시켜주는 교육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특기·적성 교육 활동이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를 지도하는 교사나 학교 시설의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참여한다면 특기·적성 교육 활동은 청소년의 여가 교육 제도으로써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학생들의 여가만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하여 제언을 하던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선정된 대상 학교는 전교생이 모두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학교 4개교로 학생들의 자율의사에 의해서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 학교를 선정할 때 학생들의 자율 의사에 의하여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참여와 비참여가 결정되는 학교의 학생들을 표집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문제로 설정한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에 따라 여가 만족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긍정

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여가 만족이 심리적 만족, 교육적 만족, 사회적 만족, 휴식적 만족, 생리적 만족, 환경적 만족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특기·적성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여가 형태를 보다 세밀히 분석하여 특기·적성 교육을 운영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 중에서 적성에 맞는 부서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25% 이상이나 되는 점에 대하여서는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기·적성 교육 활동 부서에 대한 차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접수일 : 2003년 3월 12일

□ 심사종료일 : 2003년 6월 30일

참 고 문 헌

- 강성구, 최재원(2002). 청소년의 특기·적성 교육 활동과 만족도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8, 13-20
- 경상남도 교육청(1999). 중·고등학교 특기·적성 교육 활동 운영사례.
- 경상북도 교육청(1999). 새학교 문화 창조를 위한 특기·적성 교육 활동 우수 사례.
- 곽해숙(1998). 고등학생의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 만족 여가권태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1999). 특기·적성 교육 활동 운영계획.
- 교육부(1999). 특기·적성 교육 활동의 개선 방안 연구.
- 김경태(1996).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태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열(1996). 고등학생의 여가태도와 여가장애의 관계. 학교보건 체육연구소지, 3(1), 245-257.
- 김문경(1993). 여가의 사회학. 한국의 레저문화. 한울아카데미, 304
- 김윤자·박선희(2000). 청소년기 학생의 학교 근린 환경 이용과 불건전 행동 유형.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2(1), 11-20.
- 김홍실·송강영·김경식·구한모(1996). 청소년의 여가 활동과 여가태도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6, 123-134.
- 노형규(1998).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가와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구광역시 교육청(1999). 특기·적성 교육 및 특별활동 연구.
- 박미석, 이정우, 김명자, 계선자, 김경아, 우이란(2001). 새 밀레니엄에서의 청소년 문화창조를 위한 생태학적 지원체계(VI) 청소년의 여가문화 실태 및 여가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4), 61-78
- 박상욱(1998).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가와 참가유형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성준·이홍구(1999).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가와 학교 생활 적응의 관계. *한국레크리에이션교육학회지*, 1(1), 41-50.
- 박원임(1980). 레크레이션 연구. 서울 금광출판사.
- 박정현(1999).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가와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부산광역시 교육청(1997). 방과 후 교육 활동 우수 사례집.
- 부산광역시 교육청(1998). 방과 후 교육 활동 실천 사례집.
- 선신현(1999). 중학교 특기·적성교육 운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남희·홍은실(2000).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전자오락 행동과 관련 변인간의 관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2(1), 1-9.
- 원형중·박수정·하지연(2001).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학교생활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4(2), 469-478.
- 유희영(1999). 여자중학생의 특기·적성 교육 활동과 여가만족 및 몰입경험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용진(2000). 여가시간에 이루어지는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치료. *스포츠과학회지*, 71, 56.
- 이강우(2001). 청소년의 여가활동 선호 유형과 자아개념 관계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2(4), 343-354.
- 이강현, 조춘환(2002). 해군 사관생도의 체육활동 참여와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1(2), 157-167
- 이두희, 박미석(1998). 여가와 삶의 질에 관한 구조 방정식 모형. *소비자학연구*, 9(4), 101-116.
- 이종길(1992).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정(1997). 청소년의 생활 체육 참가가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번장(1993). 국민생활체육: 생활체육 프로그램 순회 지도 사업운영 지침서. 국민 생활체육 협의회.
- 임번장·정영린(1995) 여가활동과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 체육학회지*, 34(3), 56-69
- 임혜정(1994). 청소년의 여가생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석민(1999). 2002년 새 대입제도와 특기적성 교육의 방향. *한국진로교육학회*, 10, 1-25
- 정대화(1999). 중학교 특기·적성교육의 만족-불만족 요인 분석.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우현(2000).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 활동이 농촌 청소년들의 신체적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희장(1999). 특기·적성 교육 활동에 따른 여가만족.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주현식(2001).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스트레스 해소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 연구*, 13(1), 81-97.
- 진성룡(1999). 신체적 여가활동과 교육 성취의 관계. *전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중승(2001). 초등학교의 특기·적성교육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청소년복지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담석(1998). 청소년의 여가활동 유형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전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ard, J. G., & Rahgeb, M. G.(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5(3).
- Bulten, G., & Wood, V. (1970). Leisure orientation and recreational activities of retirement community reside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 3-15.
- Csikszentmihalyi, M.(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francisco : Jossey-Bass.
- Dumazedier, J.(1967). *Toward a Society of Leisure*. New York : The Free Press.
- Evans, G., and Poole, M.(1991). *Young Adults Self-Perception and Contexts*. New York : The Falmer.
- Gold, M. S.(1980). *Recreation Planning and Development*. New York : McGraw-Hill Bock Co., 12-16.
- Homans, G.(1961).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New York : Har Brace Journal.

- Kelly, J. R.(1983). *Leisure Identities and Interaction*.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 London, M., Crandall, R., & Seals, G . W. (1977). The contribution of job and leisure satisfaction to quality of lif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3), 328-334.
- Neulinger, J., & Raps, C. (1972). Leisure attitude of an intellectual elite. : Research approaches to the study of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6, 196-207.
- Ragheb, M. G., & Beard, J. G.(1980). Mean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20-33.
- Sidney G. Lutzin and Edward H. Storey (1973). *Managing Municipal Leisure Services*. Washington, D. C. : The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25.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특기·적성 교육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여가만족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여가 선택 및 특기·적성 교육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실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참여율이 높았고, 읍, 면 지역 중학생들은 모두가 참여한 반면에 광역시 중학생은 절반 정도만이 참여하였으며 시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소득이 높은 집단이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율이 낮았으며, 부모의 학력이 높은 집단도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는 낮았다.
2.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를 보면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휴식적, 생리적, 환경적 만족의 6개 하위영역 중에서 읍, 면 지역 거주학생들이 광역시나 시 지역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 학생이 교육적 만족, 환경적 만족이 높았고, 가족의 소득이 높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여가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특기·적성 교육 활동 참여 동기에 따른 여가만족은 참여 동기가 자신의 적성에 맞거나, 진학을 위해서라고 하는 자발적인 의사결정의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참여 기간에 따라 참여 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 높은 만족을 나타냈고, 집중도에 따른 여가만족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집중도가 높은 집단의 여가만족이 높게 나타났다.